

# 하반기 개관 예정 '수소놀이체험관' 점검

### 우범기 전주시장, 추진 상황·체험콘텐츠 배치 계획·안전관리 현황 등 살펴

우범기 전주시장은 27일 수소놀이체험관 건립 현장을 찾아 시설물 전반의 진행 상황과 현장 안전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올 하반기 개관이 예정된 수소놀이체험관의 실질적인 진행 상황과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공간 공사 추진 상황과 체험콘텐츠 배치 계획 등을 보고받고, 향후 시설을 이용할 관람객들의 동선을 확인하며 이용 편의성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우 시장은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과 자연생태관 이용객의 불편과 안전 상황을 우려하며 수소놀이체험관의 조속한 마무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가 수소시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전주수소놀이



우범기 전주시장은 27일 수소놀이체험관 건립 현장을 찾아 시설물 전반의 진행 상황과 현장 안전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체험관은 전주한옥마을 및 전주자연 생태관에 인접한 교동에 건립되는 체

험시설이다.

이는 국내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수소 체험홍보시설로, 국비 34억 원 등 총사업비 82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지상 3층에 연면적 1213㎡의 규모로 지어진다. 시는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설을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수소놀이체험관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소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의 주요에너지로 자리 잡을 수소에 대한 각종 홍보와 교육을 통해 지역 생태 관광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수소놀이체험관은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개관 전까지 시설 및 체험 콘텐츠를 차질 없이 준비해 한옥마을과 연계한 또 하나의 전주만의 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27일 전주시장실을 찾아 전주시복지재단에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라면 1000개(3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 전주대, '전주함께라면' 캠페인 동참

### 학생들과 함께 전주시복지재단에 라면 1000개 기부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27일 전주시장실을 찾아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라면 1000개(3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류두현 전주대학교 총장,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 유승현 전주시복지관협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전주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시가 추진 중인 '전주함께라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성사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캠페인에 참여한 전주대학교는 대학 구성원들은 이번 기부캠페인 동참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1인 가구를 취약계층을 지원키로 뜻을 모았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나눔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공동체 정신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달된 라면은 전주함께라

면 사업을 운영 중인 전주지역 6개 사회복지관에 전달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류두현 전주대학교 총장은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전주대학교와 학생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기부해 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은 어려움이 있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모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눔에 참여를 원하는 전주시민과 기업, 단체는 전화(063-281-0030)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초록정원사 양성교육 수료식 개최

### 기본과정 31명·역량강화

### 과정 29명 총 60명 수료

전주시는 27일과 오는 29일 정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시행한 초록정원사 양성교육의 기본과정과 역량강화 과정 수료식을 각각 개최한다.

초록정원사 교육은 시민들이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역할을 갖추고 생활 속 정원을 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초록정원사 양성교육에서는 기본과정 31명과 역량과정 29명 등 총 60명이 교육을 수료하게 됐다. 교육은 이론과 실



전주시는 27일 정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시행한 초록정원사 양성교육의 기본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습을 병행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수료식은 교육 이수자들에게 수료증

을 수여한 뒤, 교육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된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대한치과위생사협회, '맞손'

### 장애인·노인 구강관리 특화사업 협약 체결

전주시는 27일 시청 별관 10층 복지환경국장실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의 일환인 '장애인·노인 구강관리 특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욱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장과 협회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신체·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정기적인 구강 관리

및 검진을 받기 어려운 노인과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가구에 전문가(치과위생사)가 개별 방문해 구강건강 인식 개선 및 예방 활동을 확대하는 등 구강 관리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김현욱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구강건강은 노인과 장애인의 전반적인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



전주시는 27일 시청 별관 10층 복지환경국장실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인 '장애인·노인 구강관리 특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여하고 통합돌봄이 한층 더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장애인 자립지원위원회 열어

전주시가 올해도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시는 27일 (사)전북도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연대 5층 교육실에서 '2026년 제1회 자립지원위원회'를 열고 자립대상자 심의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립지원위원회 위원 8명과 시 장애인복지과 자립지원팀, 수행기관 전담 인력 등이 참석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확대피해센터

에 거주 중인 홀로 씨를 자립대상자로 정하고, 지원 필요성과 적합성, 개인별 지원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또, 기타 안건을 함께 논의하며,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선호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자립위원회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믿고 구매하는 초특가 장수군 직영 쇼핑몰

**장수몰 MALL**  
JANGSU MALL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천혜자연 장수군의 맑은 물로 가꾸어진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